

정부 對 비수도권 ‘전면전’

여야 ‘수도권 과밀 억제 특별법’ 발의 강력 대응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정부와 비수도권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 등 입법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특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3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가 하면 박근혜 의원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오전 한나라당 김성조, 권경석, 배용식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최인기, 이낙연,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권선택 의원 등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청에서 회동,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국

회의원 모임’을 창설했다.

특히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통령령보다 상위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안을 국회 균형발전특위에서 전달토록 하는 등 국회 심의 및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우선 오는 6일 전체 회동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한 뒤 22일에는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

이 특별법안 발의라는 ‘장내 투쟁’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하는 ‘장외 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과문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특별법안의 경우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야당을 포함 110여명에 불과한 만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연대한다면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기에서 박근혜 의원이 이날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수가 바뀐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했으며 박희태 대표도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전국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D-10 뜨거운 高3 교실 2009년도 수능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수능 시험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광주 동신여고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美 대선

흑인 대통령 탄생 촉각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4일 새벽 0시(한국시각 4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산골 마을을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6면〉

이번 대선은 사상 첫 흑백 대결로 치러지는데다 미 건국 이래 232년만에 흑인 대통령 탄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전역은 흥분과 긴장에 사로잡혀 있다.

투표는 지역별 시차로 인해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서부지역으로 진행돼 알래스카와 괌에서 동부시각 기준으로 5일 새벽 1시(한국시각 5일 오후 3시)에 종료된다.

당선자의 윤곽은 이른바 격전지가 몰려있는 동부와 중서부 투표가 모두 마감되는 4일 밤 10시(한국시각 5일 낮 12시) 이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오바마가 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격전지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승패가 빨리 판가름날 공산이 크지만, 매케인이 이들 격전지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한다면 당선자 예측은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매케인을 5%포인트 안팎으로 앞서고 있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에서도 절반인 270명을 크게 웃돌고 있어 극적인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선과 동시에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교체하는 상원 선거, 정월 435명을 전원 재선출하는 하원 선거도 치러진다. /연합뉴스

“경제난 대책도 수도권 편중”

비수도권 “지방 경제 회복엔 역부족”

정부는 3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총 3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은 것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11면〉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4조6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수

도권에 편중돼 지방 경제 살리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고, 감세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 및 세제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는 지원 규모는 기존 감세안(10조3천억원)을 포함해 24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움직일 경우 현재 170~250%에서 법적 한도(300%)까지 최

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부분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해제된다.

중소기업 및 서민 경제 부양책도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3천억원 신규 출자가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이번 대책이 경기부양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 편중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지방 SOC 확충에 대한 4조6천억원의 지원 외에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를 비롯한 재정·세제지원 등 대책의 대화가 없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無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 상용화

전남대·목포대·동신대 공동 연구진 이산화탄소 배출 줄인 친환경 제품

석회석 대신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시(석탄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인 ‘무(無)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단장 송진규)과 목포대, 동신대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은 3일 일 반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무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 결합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무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담양의 이레콘텍㈜과 나주의 백명산업㈜과 각각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콘크리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제조 시 석회석 소성(煆性)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될 뿐만 아니

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에 해당하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무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제철과정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와 석탄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시를 결합재로 사용하고 유효미생물과 인공 경량골재를 이용해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또 무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를 이용해 시공된 건물은 외벽과 지붕에서 각각 32%와 13%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단열재 50mm를 추가로 시공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무 시멘트 그린 콘크리트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내부 모세 공극이 훨씬 작아 투수성과 동해(凍害) 저항성이 크고



송진규 단장

내약성과 내화성, 철근부식성 등도 우수하며 중금속이나 독성물질도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 송진규 단장은 “그린 콘크리트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성능과 제조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향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특히 콘크리트 2차 제품들은 탄소 제로(0) 도시개발과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적합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남부대학교 (Namju Universit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oonam Hanseung Academy (호남한성학원) with details on class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Disk?' (디스크?) clinic, claiming to cure without surgery.

Large advertisement for YB Yundohyband (YB윤도현밴드) performing at Kwangju Cultural Arts Center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on Nov 29th.